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점검 간담회

2018.12.7.(금) 15:40

모 두 말 씀

2018. 12. 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지난 8월,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추진에 항상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pecially 오늘은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과 사회복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뜻깊은 발걸음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좋지않은 않습니다.
고용상황과 자영업 업황 등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장기소액연체자 대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접수실적 및 홍보현황 평가>

11월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총 8만7천명*입니다.

* 월별 접수실적(명) : (2-3월)11,135 (4월)8,721 (5월)7,443 (6월)6,829 (7월)8,348
(8월) 22,863 (9월)4,651 (10월)7,616 (11월)9,090

접수기간을 연장한 이후,
1차 접수기간 수준으로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단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캠프 등 관계기관이
그간 홍보의 사각지대였던 숨은 채무자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한 개별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전국 30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출범한
신용서포터즈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프에서도 장애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현장 방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당부 사항>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년 2월말까지 남은 접수기간 동안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지자체들과 신용서포터즈 출범을 확산시키고
또다른 홍보채널 발굴에도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담당 위탁추심업체가 장기소액연체자 제도를
성실히 안내할 유인이 없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청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실제 채무감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한 분들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채권매입, 추심중단 및 채무면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자가 장기소액연체자재단과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채무자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최대한 채권자를 설득하여
자격을 갖춘 채무자가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약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이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 안내하여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시적 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는 채권금융기관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을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지속가능한 관계 수립을 위한 ‘투자’로 인식한다면,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통해 우량고객을 창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만,
우리의 한해는 내년 2월말 접수가 완료되는 시기에
마무리된다는 각오로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